

동네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돕기

동네순환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례 깊은 연구

기획부연

2021 작은연구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발간사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삶의 방식의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며 마을 곳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활동가와 실무자들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역센터로 요구되고 지향해야 할 사업을 시군 활동가들의 의견과 시군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21년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 정책연구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들인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작은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플랫폼, 시민자산화, 돌봄, 네트워크 진단,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9개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과 활동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외부자의 시선,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연구이자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제안된 대안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연구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과 연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균

우리를 탐구하는 시간,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

마을연구란 무엇일까요? 당사자들이 마을연구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와는 무엇이 다른지, 마을 연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해 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작다는 것은 또 어떨까요. 상대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도무지 뭘지 모를 것이라고나 할까요? 작은 연구들이 완성되어 보고서가 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으니, 올해의 작은 연구 과정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연구공동체' 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마을연구란 것이 (아직은) 뭘지 모를 것이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탐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나름의 생각을 마을공동체에 알리는 일을 하는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 이란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의 수준과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해당)마을공동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결과가 나오고 외부 평가가 좋게 나온다면, 탐구의 대상이었던 마을공동체에 의미가 없다면 작은 연구다운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 활동가가 연구자가 되고, 연구자가 마을 활동가가 되는 자연스러운 교류와 전환의 과정을 어떤 규격의 틀에 가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 문법들에 얽매이지 않는 마을 연구자의 탄생과 데뷔라는 과정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9개의 연구 결과물들은 기술 방법도 연구 방법론도 다 제각각이 되어 버렸지만, 대신 마을의 다이내믹함과 마을 연구자의 개성이 나타난 연구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는 더 많아져야 하고,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자유분방하게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마을연구가 무엇인지, 마을연구자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지겠지요. 그 과정을 중단 없이 지원해 나가야겠다는 기획자이자 담당자로서의 바람이자 다짐도 조심스럽게 담아 봅니다. 용기 있게 첫 발을 댄 마을 주민이자, 이웃이자 동료인 '작은연구자' 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기획팀

마을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 작은연구자들의 멘토되기

활동가/단체가 자기 활동의 연구자가 되어보는 경험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의제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 가설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어보거나 분주함에 놓쳤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등등. 그게 무엇이든 직접 실천하는 분들의 경험은 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멘토의 쓰임새는 연구주제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장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연구를 활동과 찰떡같이 연결시키는 현장 DNA 가득한 결과물을 보면서 다른 시선이 되기보다 “역시, 역시! 살아있네!”를 외치게 돼서 제 본분을 기억하려했던 순간이 더 많긴 했지만 앞으로도 작은연구지원사업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다른 위치성을 가져보는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은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커뮤니티적인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누군가에겐 직업, 누군가에겐 사이드프로젝트 일 수 있지만 활동을 단단하게 해주는 유용한 방식·기술 중 하나입니다. 활동가/단체들에게 이번 작은연구지원사업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동 김희정

마을활동을 기록하는 작은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연구의 연구자들은 앞만 보고 달음질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그 동안 내 아이를 키워준 마을에 감사하여, 어떤 연구자는 자녀의 학교가 있는 마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 시작해보려고, 어떤 연구자는 현재의 활동에서 나아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작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각각 다른 이유로 시작한 마을 연구이지만 연구자들은 마을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은 그 동안 이유를 묻지 않았던 일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옆에 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두 활동가들이며 그 동안의 자신의 활동을 거리두기하며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발견과 성찰을 작은 연구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연구 활동은 마을활동 만큼이나 지난한 작업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많은 수고와 안내가 필요했으며 그 여정을 열심히 걸어오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에게는 작은연구 연구자들의 마을활동과 연구활동을 함께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연구자들의 성취의 경험이 저에게도 또 다른 성취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활동의 살아있는 실체를 담아내는 작은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도와사람 연구위원 임정현

작은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나 모임을 만나면서 들었던 마음은 '참 순수하다' 입니다. 어떤 개인적 이득이나 단체의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마을을 위해 이렇게 한결 같이 나서고 고민하는 모습이 컨설팅을 하는 저에게도 힘을 받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예산이 그분들의 기획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업의 특성이나 적합성을 위해 사업 진행 전 교육이 조금 필요한 듯합니다.

예산, 결과보고에도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번기에 하는 사업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넘 힘든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한기 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열심을 더 낼 수 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적은 예산에 이런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상연구소 지금 협동조합 이사장 정상민

지난 3개월 동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모한 작은연구지원사업에 자문역할로 참여하면서, 하남시 공익활동가협의회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 교육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마을공동체의 관점과 형성으로 접근하고 해결해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남시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행정의 열악한 지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활동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하남시공익활동가협의회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장 활동의 한계와 짧은 연구기간에도 한 땀 한 땀 충실한 연구과정을 거쳐 효능감 높은 결과물을 만든 과정은 어떠한 말로도 칭찬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연구를 주도한 주록리 마을공동체 노루목향기 어르신들의 연구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지역활동 경험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 더욱 빛나는 마을 돌봄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작은연구지원을 통해 마을현장에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향유하는 당사자로, 마을 연구과정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역량이 발휘되길 바래 봅니다.

강동로컬랩 사업단장 류양선

동네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동네순환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려 깊은 연구

핑계부역은 동네 안에서 먹고살 수 있는 자립경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동네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는 공공도서관,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동네영화제, 인문학 배움터 등 다양한 공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물적, 시간적 '소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비를 위해 저 멀리 서울로, 더 먼 외곽으로 돈을 벌러 다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생계활동까지도 이 동네 안에서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에서 자립이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누구도 멀리 돈 벌러 나가는 고단한 생활을 접고, 더 많은 시간을 동네에서 누리며 가족과 이웃, 더 많은 공동체 활동에 기여할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연구목적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물가, 이직, 자녀교육. 이런 것들이 사람을 도시에 발 묶이게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누구든 미련 없이 도시를 떠날 수 있다.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그곳을 고향처럼, 삶의 터전처럼 여기기 위해서는 도시와 긍정적인 경험치가 쌓여야 합니다. 자기가 발붙이고 사는 동네에서 편안할 수 있다는 안전감이 필요합니다. 그 안전감 가운데 하나로, 자기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 핑계부역은 동네자립순환경제플랫폼을 모델링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경과

2021. 5

1차 창작자 발굴 설명회 및 창작자 면담
(이우중학교)
매대 제작 자료조사 및 디자인 구상
마을장터(해도두리) 참여

2021. 6

2차 창작자 발굴 설명회 및 청소년 창작자 면담
(이우중학교)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마을장터(해도두리) 참여

2021. 7

3, 4차 성인 창작자 면담
매대 제작
숍인숍 매칭 동네 가게 조사

2021. 8

창작자 상품 개발 지원
연구 자문회의 및 컨설팅(브랜드 전략)

2021. 9

스토리텔링 수집 및 홍보자원 조사
숍인숍 운영 준비
홍보 및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
연구 중간보고

2021. 10

창작자 상품 개발 지원
숍인숍 운영 및 판매 실험
동네 순환경제 가이드 작성
연구 완료 및 제출

연구요약

동네 안에서 먹고살 수 있다면 동네는 천국이 되고 누구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애정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동네를 가꾸고 돌보고 그 안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하려는 총체성을 욕망하고 구현하는 데 힘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연구의 가설이다. 그렇다면, 이 가설을 입증하는 노력의 첫걸음으로서, 동네 안에서도 먹고살 수 있는 자립 경제 플랫폼 모델을 실험하고자 '동네 안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돕는 동네순환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례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동네 안에 숨은 창작자를 발굴한다.
2. 창작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활동을 돕는다.
3. 소유가 아닌 점유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움직이는 가게'에서 상품을 유통시키는 로컬 경제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4. 기존 동네 자원(상권, 공유공간, 유희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과 상생의 순환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5. 한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 안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은 어떤 조건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모델링을 시민사회에 제시한다.

#로컬경제 #동네자립 #자립 #공간점유 #생계활동지원 #자립경제플랫폼
#대안유통 #창작자 발굴 #점유의미학 #자립지원시스템모델링 #리빙랩

목차

연구경과

핑계부역이 발굴한 우리동네 창작자

핑계부역이 제작한 자립경제플랫폼 움직이는 가게

핑계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존 경제 주체들

동네자립경제플랫폼의 시민자산화를 위한 요건 모델링

개요

연구목적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재개발, 물가, 이직, 자녀교육... 이런 것들이 사람을 도시에서 발 묶이게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누구든 미련 없이 도시를 떠날 수 있다. 도시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곳을 고향처럼, 삶의 터전처럼 여기기 위해서는 도시와 긍정적인 경험치가 쌓여야 한다. 자기가 발붙이고 사는 동네에서 편안할 수 있다는 안전감이 필요하다. 그 안전감 가운데 하나로, 자기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 핑계부엌은 동네자립순환경제 플랫폼을 모델링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는 공공도서관,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동네영화제, 인문학 배움터 등 다양한 공적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물적, 시간적 '소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비를 위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저 멀리 서울로, 더 먼 외곽으로 돈을 벌러 다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생계활동까지도 이 동네 안에서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연구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에서 자립이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누구도 멀리 돈 벌러 나가는 고단한 생활을 접고, 더 많은 시간을 동네에서 누리며 가족과 이웃, 더 많은 공동체활동에 기여할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주체 소개

핑계부엌은 동네 안에서 먹고살 수 있는 자립경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동네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 절차 및 내용

동네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 '동네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견되는 문제들과, 그 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로 '생계활동이 가능한 동네' '자립 경제가 가능한 동네'라는 모델을 떠올렸다. 이러한 동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네에서 순환되는 '자립경제'모델이 동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서 사는 맛, 즐거움이 커져 자기 삶터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 애착에 기반한 힘들이 동네를 공동체로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는 그 가설을 입증기 위한 실험들을 통해 동네자립경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원시스템의 구체 모습을 모델링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 문제의 발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를 '고향'으로 여기지 않는다. 도시의 구조와 여건은 언제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내모는 위기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항력으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도시가 지닌 매력도(입지, 교육, 생계활동, 문화, 인프라 등)가 사라지면 언제든 나는 이곳을 떠난다'라는 허울 좋은 마음의 각오 정도가 유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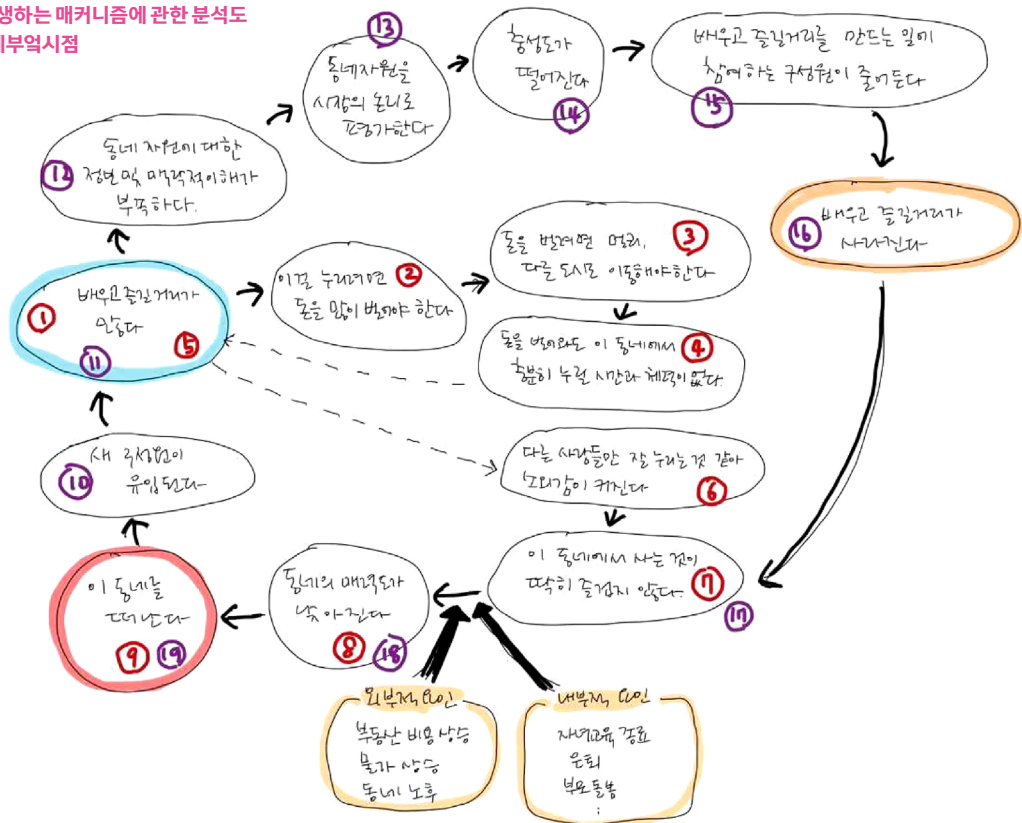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 도시로부터 소외당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언제든 버릴 거야 하고 버리며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곳을 꺼안으며 무한히 애정하며 살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이 연구의 출발이다.

2단계: 가설 설립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겠지만, 핑계부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대책이 '동네 안에서 생계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상기 제시된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도'를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 쉽다.

동천동이라는 동네는 입지조건이 좋고, 교육, 문화적 인프라가 높은 동네이다(그림에서 ①). 입지조건과 교육환경은 서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도
by 전지적 핑계부업시점



올과의 거리, 접근용이도, 교육기관의 유무 등 물리적인 인프라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개인 및 공동체의 역량으로 쉽게 조절될 수 없는 부동산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문화적 인프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성격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영역으로 동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적 요소는 각 도시마다 공통적으로 갖출 수 있는 요소임에 반해 동적 요소는 그 도시의 특수성이자 개성적 요소이다. 동천동은 이러한 동적 요소에 의해 조금 더 '매력적인 도시' '매력적인 동네'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이 충만한 동네라도, 그걸 누리기 위해 소비해야 하고, 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그림에서 ②),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멀리 다녀야 한다(그림에서 ③)면 이 동네에서 다른 활동을 해 볼 엄두를 못 낼 것(그림에서 ④)이다. 그리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멀리 돈 벌러갈 필요가 없는 소수이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그 박탈감은 훨씬 커질 것(그림에서 ⑥)이다. 이 동네에서 사는 것에 효용감이 크지 않게 되고(그림에서 ⑦), 여기에 부동산 비용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이 종료되는 등의 외부적 내부적 요인이 더해지면 결국 이 동네를 떠나게(그림에서 ⑨) 된다.

동네에 구성원이 물갈이 된다는 것은 동네의 전통이나 문화 맥락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도시

안에서 가까스로 이어 온 공동체성에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 도시, 그 동네가 가지고 있던 따뜻한 기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들은 사라진 채 또 하나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자기가 사는 곳을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여기가 망가지면 나는 떠날 테니 살면 되지 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온갖 문제가 일어나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내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자신이 문제 유발자가 될 수도 있다.

핑계부업이 분석한 이 도시 문제 발생의 메커니즘에서 어느 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보다 상위지점에서 해결해야만 보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핑계부업이 세운 가설은 ②, ③의 문제를 해결하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동네안에서 생계문제가 해결된다면 도시도 고향이 될 수 있다' '일터와 삶터가 가까워진다면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높아진다'는 가설이다.

3단계: 실험

너무 멀리 이동하면서, 너무 무리해서 일하고, 너무 많은 돈을 벌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이 동네에서의 삶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핑계부업은 동네에서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립경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을 해 보기로 했다. 이 실험을 위해 작은연구지원사업의 힘을 빌게 된 것이

다. 자립경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을 위해서는 동네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보고 싶어하는 주체들을 만나거나, 그럴 생각은 못 해 봤지만, 동네에서 먹고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생각을 모으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만나거나 해야 했다. 그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자립경제를 도울 길도 모색하고 실제로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유효한 도움인지, 따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작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에 힘입어 핑계부엌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의 구체 내용과 성과들은 이후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게 될 것이다

4단계: 가설검증 및 전략구축

동네에서 경제주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도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최초의 가설은 너무나 유효하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후 핑계부엌의 연구 방향은 동네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 쪽으로 확장되었다. 그 내용은 '주요성과4'에서 다루고 있다.

동네 안에서 경제적 자립과 경제논리를 넘어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지원시스템의 모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 동네에 사회적경제 및 자립경제지원 정책과 형태가 마련될 때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경과

5월	창작자 발굴 1. 창작자 발굴 설명회 1차 - 이우중학교 2. 창작자 면담 1차-청소년창작자 플랫폼 구축 1. 매대 제작 자료 조사 및 디자인 구상 2. 마을장터(해도두리) 1차 참여 연구관리 사전발표회 자문회의 1차	8월	창작자 발굴 창작자 상품 개발 지원, 브랜드 전략 컨설팅 플랫폼 구축 1. 슨인스 공간 섭외 2. 매대제작 연구관리 중간보고 자문회의 3차	10월	창작자 발굴 1. 창작자 상품 개발 지원 2. 스토리텔링 수집 및 홍보 자원 구축 3. 창작자별 기획전 진행 플랫폼 구축 1. 작품 유통을 지원할 때 필요한 조직요건 및 환경조사 2. 슨인스 운영 3. 홍보 및 판매 실험 4. 경제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가이드 정리 연구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창작자 발굴 1. 창작자 발굴 설명회 2차 - 이우고등학교 2. 진단 제작 및 배포 3. 창작자 면담 2차-청소년창작자 플랫폼 구축 마을장터(해도돌) 2차 참여 매대 재료 구매 연구관리 지원금 1차교부		창작자 발굴 창작자 상품 개발 지원 스토리텔링 수집 및 홍보 자원 구축 창작자별 기획전 준비 플랫폼 구축 1.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창작자 수요 조사 2. 슨인스 준비 3. 홍보 및 판매 실험 연구관리 1. 결과보고서(출판용) 제출 2. 자문회의 4차(예정) 3. 지원금 2차 교부		연구관리 정산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7월	창작자 발굴 1. 창작자 면담 3차 - 성인 창작자 2. 창작자 면담 4차 - 성인 창작자 플랫폼 구축 매대제작 슨인스 매칭 동네가게 조사 연구관리 자문회의 2차				

주요성과 27+6+4+α

28명의 동네 숨은 고수를 발굴하다!

- ✓ 동천동에 있는 이우중학교, 이우고등학교, 한빛중학교, 소명학교, 손곡중학교, 수지고등학교 등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및 핑계부엌 설명회를 통해 12명의 청소년 창작자들을 발굴하였다.
- ✓ 동네 커뮤니티 공간 및 집합상가 및 주택에 전단지 배포하고 유관기관 설명회를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핑계부엌을 알리고, 5명의 성인 창작자들을 발굴하였다.
- ✓ 동네 창작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창작물의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공연 등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활동, 시식, 시용 등 창작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는 활동, 자기 재능을 나눔할 수 있는 강좌, 함께 변화를 이끌어가고픈 영역에 관한 캠페인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진 창작자들이 동네에 정말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으며, 창작자들의 발굴 작업은 사업 기간 내내 가장 활발하게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6개의 가게를 만든다!

- ✓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인 '움직이는 가게'를 창작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 ✓ 이 '움직이는 가게'는 주로 수레, 선반, 매대, 쇼케이스 등의 형식으로 각 창작자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 최적화된 크기와 규모로 디자인되었으며, 게릴라 판매 및 전시,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4곳의 동네 기존 상권 및 공유공간과 결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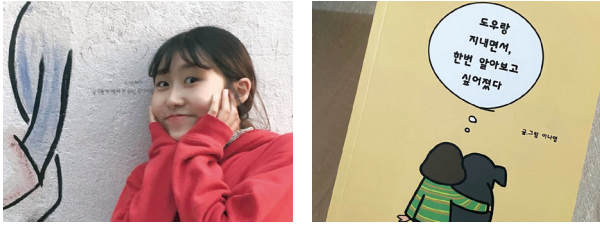
- ✓ 동네 빵집인 '해피쿠키', 동네 책방인 '우주소녀', 동네 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에 솽인솽을 차리고, 동네를 관통해 흐르는 동막천변에서 열리는 장터팀과 협약을 맺어 핑계부엌에서 발굴한 창작자들의 특별코너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 ✓ 솽인솽과 정기장터를 통해 창작물을 상품화하고 브랜딩하고 고객을 만나 판매하는 경험을 통해 자립경제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핑계부엌형 자립경제플랫폼 모형을 구축하다!

작은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자립경제플랫폼 실험을 통해 핑계부엌은 창작자를 발굴하고, 즐겁게 창작하는 활동이 곧 생계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동네자립경제지원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 '핑계부엌형 자립경제플랫폼' 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핑계부엌이 발굴한 우리 동네 창작자

반려견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은 바람을
책으로 담아 낸 청소년 작가 '이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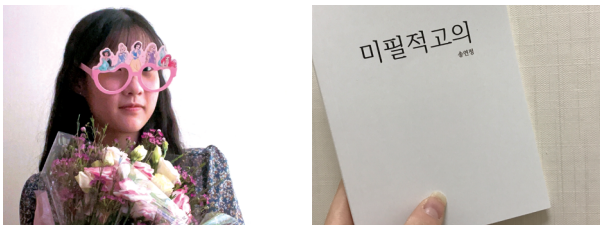
도우랑 같이 산 지 7년이 다 되어 가요. 이제 조금 도우의 소리나 행동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잘 몰라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 어렵게 알게 된 반려동물의 언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손수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문구를 친구들과
같이 쓰고 싶어 문구를 만드는 청소년 디자이너 '히유'



그동안 스티커나 달력 같은 거를 만들어 봤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뭘 해 볼까 고민하던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는 날이 너무 많아졌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우리 학년 친구들을 한번에 다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 뭐예요. 직접 만나는 건 아무래도 금세 될 거 같지 않아서, 우리 기수 이름이 모두 한데 적힌 엠블렘을 만들어 봤어요.

중2병을 앓아 낸 뒤 얻은 성장의 열매를 책으로 담아 낸
청소년 작가 '쏘옹'



제가 중2병을 살짝 심하게 했거든요. 그때 맨날 죽는 것만 생각했어요. 다 죽어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뭐든지 다 죽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살인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발견을 알려주고 싶어요.

대학 말고 논밭에서 농사에 인생을 걸고 싶은
고3 농사꾼 '약동희'



대학은 모르겠고, 농사 한번 짓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텃밭을 빌렸어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이랑 같이 농사지어요. 근데 작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농사지어서도 먹고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먹을거리가 가득하니까 굶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직접 먹는 것도 좋은데 팔아서 돈도 벌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런 실험 핑계부엌에서 해보고 싶어요.

**크고 동그란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는
작업반장 중2 창작자 '임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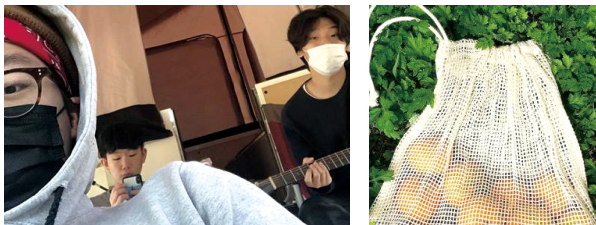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천도복숭아가 생겨서 청 만들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병을 사고 설탕도 사고 씻고 말리고 썰고 설탕으로 재고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키고 병을 씻고 소독하고 말리고 예쁘게 담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친한 친구와 엄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엔 혼자 할 수 있겠지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청소년 캠페이너 팀 '랄R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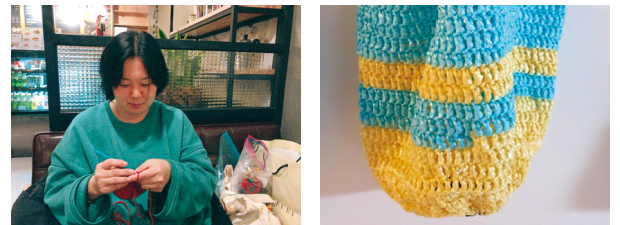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희는 'RAR[랄]'입니다. RAR[랄]은 Recycling And Replacement를 줄인 말이고요, 학교에서 하는 '문제공감프로젝트'로 플라스틱 줄이는 캠페인을 벌이고 싶어서 핑계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플라스틱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생기는 여러 문제를 알리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용품을
더 많이 보급하고 싶은 환경지킴이 청소년**



안녕하세요.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고등학교 1학년 나혜린, 박준역, 윤상원, 이우진, 이준서입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체할수 있는 제품을 핑계부엌에서 공동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친환경 수세미와 프로듀스백(야채, 과일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서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해 보는데, 핑계부엌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실현해 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캐 말고 부캐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웹디자이너 '아툼'**



원래 직업은 웹디자이너예요. 그런데 평생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웹디자이너라는 게 컴퓨터만 끄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뭔가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뜨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꽤 재주가 있는 거 같아요.

과일이 잘 익었다고 이유로 외면당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걸로 잼을 만들기 시작한 '철이'



과일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일이 가장 맛있고 가장 잘 익었을 때 시장에서는 오히려 값이 형편없어요. 아예 취급을 안 하려고 하죠.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조금만 흠이 생기거나 못생기거나 하면 그게 또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맛이나 영양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모아서 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장 달고 맛날 때 만드니까 설탕도 필요없고요. 요런 걸 핑계부역에서 팔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 팔아 보는 거지요.

도라지청 만드는 새로운 비법이 생겨서 소개하고 싶은 주부 백단 '하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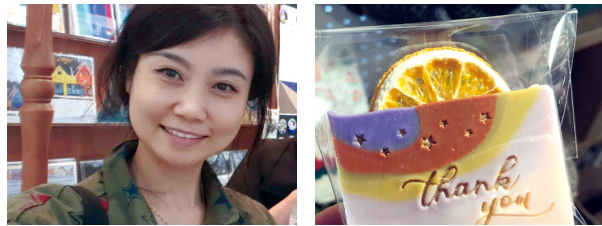
도라지청을 매년 썰어서 고우기만 하다가, 한번 가루를 내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맛이 깊어지고 특히 향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는 특허를 백 번 내 봤어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또 그런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말았는데, 어쨌거나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알아도 가루 내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 제가 만들어서 팔면 살 사람이 좀 있을 거 같아서요. (그래도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맛이나 향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천성이 게으르지만 바느질 한번 하면 끝까지 해내는 창작자 '조인주'



저는 편집디자이너인데 천성이 게으르서 회사생활을 접은 지 오래예요.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체질에 맞지요. 그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살아도, 바느질 한번 할 때에는 끝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손수 바느질해서 만든 인견 때수건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핑계부역에 보탬도 되고, 저에게도 응원일 될 거 같아요.

평생 숫자만 만지다 보드라운 것만지고 싶어서 천연비누공예를 시작한 '쥬블리'



저는 평생 회계일을 하면서 숫자하고 씨름해 왔어요. '씨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회계 일이 늘 어렵더라고요. 오래 했는데도 할 때마다 마음에 기합을 잔뜩 넣어야 했지요. 그래서 긴장의 끈도 좀 풀고 내 삶을 조금은 여유있고 넉넉하게 꾸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을 때려치우고 조금 쉬면서 숫자보다는 좀 더 보드라운 것들을 만지게 되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도, 소속 없이 지내는 것도 결정하기까지 덜덜 떨렸는데, 이렇게 향기 좋고 느낌 좋은 것들을 어루만지다 보니 어느새 불안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접근가능한 생계활동 방안을 마련하다!

‘움직이는 가게-전시관-무대-게시판’이 유효한 몇 가지 이유들

생계활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해서 ‘나는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핑계 부엌이 만난 창작자들 대부분은 자기 재주가 돈을 받고 제공할 만한 상품으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쉽게 믿지 않았고, 그걸 선보일 가게를 마련하는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첫 발자국을 한 걸음 떼게 하는 일로 작고 가쁜한 가게를 운영해 보는 일이 필요했다.

동천동은 용인시 안에서도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아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동네이다. 이곳 가게들의 평균 월세는 200만 원 안팎이다. 가게 하나 내려고 하면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 월세만 2,400만원, 보증금과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생각하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들이고, 공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면 누구나 그 장벽을 거뜬히 넘어서서 ‘행동’으로 이어 낼 수 있게 된다.

동네 창작자들의 작품활동은 한 가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식 제작과정과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이걸 만들어 보지만, 다음엔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한번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또, 처음에는 그저 물건을 내다파는 일에 그치지만 다음에는 그 물건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든 물건을 모아서 전시도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활동과 맞물려 어우러지도록 가게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및 조합이 가능한 움직이는 가게가 이 활동을 담아내는 데 유효한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움직이는 가게 1호] 손수 만든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숨인숨 매대

하부장(지원금)

규격: 80×80×120

재질: 나무

자체 제작

상부 진열대(자체비용)

규격: 80×180

재질: 스테인리스

재활용, 자체 리폼



[움직이는 가게 2호] 먹을거리를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흡인습 신선 매대

냉장쇼케이스(자체비용)

규격: 150×100

재질: 스테인리스, 유리

재활용, 자체 수선 및 리폼



[움직이는 가게 3호] 울퉁불퉁한 골목길에 충격이 덜 가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 매대

규격: 50×80×90

재질: 나무, 우레탄 바퀴

자체 제작



[움직이는 가게 4호] 기존 카트에 실어서 이용하고
서랍으로 수납이 가능한 움직 매대

규격: 40×60×60

재질: 나무, 스테인리스 레일

자체 제작



[움직이는 가게 5호] 책과 나무 공예품을
진열할 수 있는 책장 매대

규격: 60×40×180

재질: 나무

자체 제작



[움직이는 가게 6호] 커다란 바퀴가 안정감을 주고
크고 넉넉한 물품을 모아 파는 수레 매대

규격: 80×110

재질: 나무, 타이어

재활용, 수선, 자체 제작

기존 경제주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네경제활성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엄마들의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동네 빵집 '해피쿠키'



해피쿠키는 우리밀과 천연발효로 빵을 만드는 빵집이에요. 7명의 엄마들이 요일별로 주 담당을 맡고 일주일에 1~2일을 일하는 협동조합 일터이기도 해요. 우리 먹으려고 만드는 빵이기도 해서, 건강한 빵을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 하나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담하고 더 많은 급여를 챙겨가거나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지요. 그래서 빵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핑계부엌에서 잼 만드는 장인이 결합해 줘서 빵집에 잼이나 청 같은, 빵과 어울리는 결들임 음식들이 갖춰지게 되었네요. 우리 빵집에 상품 구색도 풍성해지고, 동네 창작자에게 상설 가게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돼서 기쁩니다. 동네 가게들이 모두 이런 일에 동참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 동네 청년들의 책방 '우주소년'



우주소년은 스무살, 스물한 살 친구들 다섯이서 함께 운영하고있는 책방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바로 이 일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책도 보고,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 일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우리처럼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기를 꿈꾸는 후배들이 여기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핑계부엌 안테나숍을 같이 하자고 한 건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우리의 자립을 이루게 해 준 곳이니만큼, 누군가가 우리 책방을 통해서 자립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정말 보람찬 일이 될 테니까요.

**동네 메이커들의 과정을 돕는 공공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지만, 지역사회나 동네 사람들에게 공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실험들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수행해 왔어요. 지난해부터는 '물음표와 쉼표'라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핑계부엌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작품 활동을 하거나, 그 작품을 전시하는 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옹다구나 싶었어요. 이 공간에는 부엌, 간단한 목공방,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3D프린터, 옥상텃밭, 전시공간처럼 다양한 공간과 장비들을 창작자들의 작품과정에 공유해 줄 수 있거든요. 이 물적 인프라와 핑계부엌의 창작자들이 만나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지, 상상만 해도 신이 납니다.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장터
'해도두리'**



해도두리장터는 동천동 마을 주민들의 장터입니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크고 작은 단체와 모임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 손수 만든 물건들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음악이나 연극, 춤 같은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마을 전체에서 재활용품을 줄이자는 캠페인도 벌입니다. 아쉬운 것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열리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로 몇 번 열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늘 열릴 수 있는 핑계부엌 움직이는 가게에 기대가 큼니다. 장터만 해도 한테 모일 너른 공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동 하는데요, 핑계부엌이라면 모든 장꾼들이 동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도 동네 구석구석에 더 많이 흩어져서 온 동네를 더 큰 장터로 만들어 낼 거라 믿습니다.

핑계부역형 동네자립경제지원플랫폼 모형 제시

핑계부역형 자립경제플랫폼은 어떤 모형인가?

핑계부역형 자립경제플랫폼 모형은 1개의 핵심 도구와 7개의 단계별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핵심 도구는 '대화'이다

핑계부역처럼 작고 작은 동네 밀착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은 긴밀하고 또 긴밀하게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이다.

대화를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들을 발굴하고, 그 주체들이 어떤 내용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지 정리한다. 창작물이 상품이 되는 과정, 그 상품이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되는 과정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창작자가 아니라 향유자 소비자로 참여할 때에도, 더 싸고 더 많이 사는 양적 소비행위를 철회하고 이 플랫폼 안에서 작고 긴밀하게 소비하겠다고 결정하는 만드는 도구 역시 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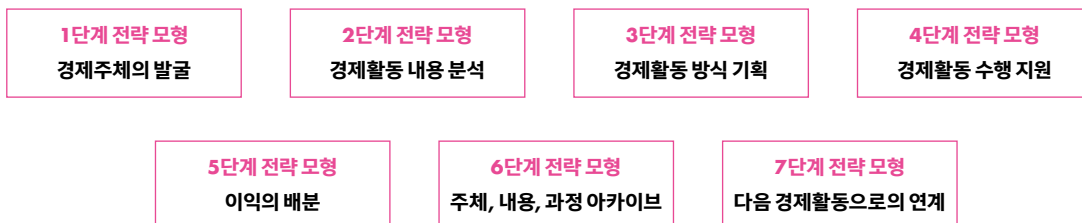
핑계부역이 작은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많이 한 활동이 바로 이 '대화'였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자기 힘으로 가능하거나 한 건지, 그것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그들이 묻고 우리가 묻고, 서로가 서로에게 답해 주고 생각을 보태어 간다. 그저 자기가 즐겁게 빚고 짓고 만들던 것들로도 생계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해보고 싶다! 하고 마음을 내는 것, 할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내어 보는 것들이 모두 '대화'로 이루어졌다.

대화 통해 참여자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도구로 쓰인다는 발견과 함께, 그들을 지원하는 주체인 핑계부역에게도 대화는 탁월한 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핑계부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이 가진 재주와 그 재주의 시작, 그 시작의 시작 등을 풍부하게 들으면서, 한 사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창작하는 창작물이 커다란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바람들을 말과 표정과 의지로 직접 접하게 되니 그 일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생겨났다. 더 잘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의 것이었다가 나의 바람으로, 우리의 바람으로 번져 갔던 것이다.

핑계부역은 이것이야말로 '지원플랫폼'이 가져야 할 핵심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돕고 싶은 마음, 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어떤 내용의 지원사업이든,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지원플랫폼을 구축할 때, 기존 절차들처럼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접수받고 기준점을 설정해 점수를 부여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활동 주체와 지원 주체 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원사업은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만다.

열린 대화를 통해, 보다 긴밀하고 보다 총체적이고 보다 전면적일 것. 이것이 핑계부역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의 핵심 전략이다. 그 핵심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이행의 핵심 도구 '대화'

2. 단계별 전략1 : 경제주체를 발굴하고 특정하기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로서,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 성인 등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하면, 일하다 쉬고 있는 어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 어린아이들, 취미나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과 사람들의 집합체, 혹은 사람이 아닌 단위 모두가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핑계부엌이 경제주체를 발굴하는 작업은 자신이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발굴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미 스스로 생업전선에 뛰어들겠다는 의지와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곧바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핑계부엌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떨떨해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도 좋아할지, 자기가 판다고 하면 누가 사 줄지, 자기가 기획한 서비스를 이용할 상황에 놓인 사람이 또 있을지 같은 것이 아직 불확실하고, 그럴 가능성을 생각도 못 해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이다.

핑계부엌은 이번 연구에서 경제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전단 배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단체연계 등을 통해 101명의 경제주체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대화'를 통해 27명의 경제활동주체를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소한 재주들을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그 재주에 대한 이야기와 그 재주를 부리게 된 사연과 그 사연의 출발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연결고리들까지 전부 나누고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수세미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일로 만난 사이임에도 친구가 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3. 단계별 전략2 : 경제활동 내용 분석

앞서 1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만난다. 따라서 경제주체로 전환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단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면 그 재주가 어떤 내용인지 그 재주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지, 그것은 수요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게 될지 등을 분석한다.

웹디자인을 하고 있는 아톰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나도 컴퓨터만 끄면 그 모든 수고가 싹 사라지고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늘 허무하다고 했다. 그래서 열심히 시간과 품을 들이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남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전부터 취미로 동네 엄마들과 같이 하던 뜨개 모임에서 코바늘뜨개를 할 때의 즐거움이 컸다. 그래서 코바늘로 무언가는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뜨개모임에서 뜨개질을 할 때는 좋은 작품, 예쁜 물건, 완성도 있는 작업에 꽂혀서 실이나 부재료를 비싸고 풍성하게 이용했다. 그런데 자기 작품을 만들 때에는, 이것 때문에 또 실을 사고 또 부재료를 사고 하는 것이 어쩐지 소모적으로 느껴졌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꾸 예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도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신랑이랑 연애했 때 선물받아 놓고 색깔이 너무 야해서 못 두르고 다닌 목도리를 풀어서 티코스터를 만들었다. 그때 기쁨이 컸다고 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돈을 주고 새로 사는 일은 하지 않는 방식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는 아톰에게 '리즈 시절에 입던 옷으로 만든 뜨개용품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아들만 둘을 키우는 집이라 바구니마다 그득했던 압박봉대나 집안에서 굴러대기는 비닐봉다리처럼, 사람들이 흔히 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소재들도 모두 코바늘뜨개로 엮어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가 가진 걸 다 쓰고 나면 사람들에게서 실이나 실이 될 만한 물건을 기증받아서 자원을 순환 시킬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하며 신이 났다.

이렇게 한 사람의 바람과 걱정, 지키고 싶은 원칙에 맞는 활동의 내용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것이 핑계부엌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의 2단계 전략이다.

4. 단계별 전략3 : 경제활동 방식 기획

자립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1단계와 2단계 전략은 창작자의 상황과 니즈를 파악하는 영역이라면, 3단계는 지원플랫폼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동 방식을 기획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동천동에는 학교가 많다. 초, 중, 고등학교가 고루 들어서 있으며 그가운데에는 대안학교나 학교박척소년들을 위한 배움터도 많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구가 많은 편이라 핑계부역에서도 창작자들을 발굴할 때 어린이 청소년들을 빼놓지 않고 함께 만나 왔다.

고3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농사집단 악동회는 서투르고 느슨하기 짝이 없는 농사꾼들의 모임이었다. 대학 가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몇몇 아이들이 농부가 되고 싶어 농사를 가르치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학교 밑 노작수업하는 밭을 빌려 손수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런데 실은 구성원들 가운데 채소를 그리 즐겨 먹는 사람이 적기도 했고, 한여름 채소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때는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해서 찢쩍 매는 경험을 했다. 악동회는 이렇게 넘치는 채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핑계부역에 먼저 문을 두드렸다.

우선 농산물을 자기가 먹을 것과 선물할 것, 내다팔 것으로 구분하고, 소분해서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만들어서 값을 매기고 판매해 보자는 걸 제안했다. 이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 쉬운 생각이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암중모색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가늠해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이나 공부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과 설명과 설득, 저항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 것이다. 그다음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은 아는 사람이 옆에서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해 주면 될 일이다. 악동회와 만난 핑계부역은 그 아는 사람이 되어 악동회 친구들이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 어렵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 주기 시작했다.

악동회라는 이름도 그저 느슨하게 스스로 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정성껏 설명해 주어야, 사는 사람들도 정성껏 그 물건을 대하고, 아껴 먹을 마음을 낼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악동회 친구들은 자기네 이름을 ‘악동회’라 짓고 손수 농사지은 채소들을 하나하나 예쁘게 찍고,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상품 포장을 고민하다가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신문에 써서 주면 좋겠다고 정했다. 장터에는 종일 나와 있기 힘드니 2명씩 짝을 이루어 판매를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마을장터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 동네에 살아도 학생의 공간과 주민의 공간은 사뭇 달랐다. 이들이 장터에서 자기 농산물을 파는 순간 이 공간이 뒤섞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교차되는 경험을 했다.

경제활동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는 정답이 없다. 지원플랫폼은 따라서 참여주체가 가진 내적 역량을 끌어올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와 동기부여를 독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두가 당장에 경제 주체로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손으로 짓고, 빚고 만드는 감각을 소장하기 위해 핑계부역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굴을 담가 보는 캠페인을 펼친 것도 같은 맥락서 진행한 활동이었다.

정성껏 만나되 대신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핑계부역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이 지켜야 하는 거리감이라는 사실을 이런 실험들을 통해 거듭 확인했다. 그제서야, 먹고 남은 만큼의 채소가 수확될 때는 그걸 내다팔아서 다음 농사자금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5. 단계별 전략4 : 경제활동 수행 지원

자기 창작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혼자 즐길 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한다.

먹을거리를 만들어 팔려고 하면, 맛과 질이라는 핵심적 요소 말고도, 위생관리, 재료관리, 유통기간 관리, 판매자격 갖추기 등의 행정적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창작물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이걸 왜 다른 것들과 다른 건지, 그걸 왜 동네 사람들이 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기 언어가 필요하다. 그 언어는 평소에 쓰던 언어와는 물론 다르지만, 평소에 하는 말과 또 크게 다르지 않다.

핑계부엌은 창작자들과의 만남에서 그 언어들을 낱낱이 주워 담아서 행정이 필요로 하는 언어로,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수행했다. 자기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각 창작품들에 걸맞은 유통채널도 다양하게 매칭했다. 소비재의 경우는 마을장터를 통해 움직이는 가게에를 꾸려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나 모임을 꾸려 하는 환경캠페인, 제로웨이스트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카스뉴스나 웹진단지로 소개하고 온라인 상에서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온라인 채널을 개방했다. 책은 움직이는 책방에서 읽고 리뷰를 쓰고,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네책방과 주전부리, 동네 빵집과 잼 이런 식으로 동네에 기존 가게들에 매칭이 가능한 물품들은 기존 가게 안에 솥인솥을 차려 전시하고 판매했다. 시를 쓴 친구가 낭독을 하는 무대, 음악공연을 생각하는 팀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런 무대를 직접 운용해 보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다.

이렇듯 핑계부엌은 창작자의 취향과 창작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덕분에 창작자들은 짓고 빚고 만드는 일에 자기 역량의 발휘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이다.

6. 단계별 전략5 : 모두가 이로운 이익의 배분

이제 창작자들은 핑계부엌을 통해 자기의 창작물을 유통시켜서 수익을 얻는다. 창작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창작자가 얻고 싶은 수익(A)에 더해 지원플랫폼의 수수료(B), 기타 공간(기존 상권 포함) 이용료(C), 이 전체 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공기금조성(D)를 더해서 최종 산출한다.

먼저, 원래 창작자가 이 작품으로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를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다. 재료비나 들이는 시간과 품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돈의 규모가 곧 수익일 텐데, 그 규모는 딱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 유통을 돕는 지원플랫폼인 핑계부엌은 거기서 30퍼센트의 수수료를 책정한다. 창작자가 1만원을 제시하면 3,000원을, 2만원을 제시하면 6,000원을 지원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상권에 결합하거나 외부 공간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10퍼센트, 이 전체 플랫폼의 지속을 위한 기금에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최종 가격으로 정한다.

가격의 구조=이익의 배분

창작자가 원하는 수익액수A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의 수수료B(A*30%)

+기존상권 이용료C(A*10%)

+지속가능한 자립경제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적자금 D(A*10%)

이 이익의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누군가가 동네 안에서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어야만’ 이익을 배분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모두가 이익이 생기는 일이다.

이것이 핑계부엌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 발생 원리이다. 나의 생계활동이 나만 배불리는 활동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이들, 나의 벗들, 이웃들을 다 배불리는 활동이라는 연결선상에 대한 인지.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핑계부엌을 통해서 하게 된다.

물론 수익을 나누는 비율이나 규모에 관한 것은 추후에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공적 영역에서 이러한 플랫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

7. 단계별 전략6 : 주체, 내용, 과정의 아카이빙

아카이빙에 대한 감각은 다른 어떤 경제활동지원 시스템에서 한번도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나 핑계부여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한 사람도, 한 작품도 이 순간에만 머무는 법이 없다.

사람은 과거로부터 달려와 헉헉 뜨거운 숨결을 내뿜으며 이 순간에서 있고, 또 동시에 저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와 만난다는 건, 그 순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하고 확장되고 미분되어지는 순간이다. 그 순간에 아주 큰 밀도를 나누고 그것은 다시 중요한 경험과 기억으로 차곡차곡 쌓인 뒤 다시 여러 순간 속에 포섭되어 다시 그 사람의 전체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만지고 보고 맛보는 그 상태가 전부가 아니다. 많은 사연과 배경이 들어서 있다. 창작자가운데 한 사람인 이돌녀 씨는 신장이 안 좋아서 막 투석을 시작했다. 돌녀 씨는 평생 일을 손에서 놓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투석을 미루다미루다 더는 미룰 수 없을 때 투석을 시작했다. 투석을 시작하면 그전만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을 거 같아서 돌녀 씨는 무척 두려워했다. 그런데 투석을 하고나니 그동안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힘겹던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또, 투석을 하는 반나절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자발적인 휴식은 아니더라도, 유일하게 휴식이 되는 시간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돌녀 씨는 투석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졌다.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들어서니 슬그머니 투석을 하는 시간에도 무언가 해 볼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뜨개질로 작은 소품들을 만들었다. 아래 작품들이 투석기가 돌아가는 침대 위에서 돌녀 씨가 만든 작품들이다.

이 작품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핑계부여 뜨개 용품 입고 안내]

오늘은 뜨개물품에 새로운 창작자님이 함께해 주셨네요. 이돌녀 여사가 똑딱똑딱 만든 컵받침과 장식깔개여요. 이돌녀 여사님은 평생 뽀뽀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쉬지 않고 일해 왔어요. 보육교사 아이돌봄 건물청소 우유배달,, 통장에 풍물 공연 봉사까지, 하는 일 개수가 요즘 엔잡러보다 많았다지요. 식구들이랑 나들이라도 나갈 때면 모두가 먹고도 남은 간식을 만드느라 가장 늦게 문을 나서고 약속터에 오를 때면 빈손으로 올랐다가도 도토리며 밤이며 고사리며 두 주머니가 불록불록하게 열심히 주워 담아 오는 양반이었지요. 최근에 콩팥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결국 투석을 시작했는데, 그 반나절을 두고 “엄마야, 내가 덕분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때가 다 생겼다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쉰 것도 한두 번. 이돌녀 여사님은 투석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생각해 슬그머니 낚고 이 작품들은 그렇게 이돌녀 여사의 유일한! 휴식시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번 작품의 수익금은, 5퍼센트 남은 기능이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해서 이돌녀 여사의 콩팥 응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8. 단계별 전략7 : 다음 경제활동으로의 연계

이 작품은 이 이야기와 함께 귀한 물건이 되어 사람들 입에 두고두고 오르내렸다.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산다고 몰려든 것이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맨 먼저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아니었다. 한참 뒤에 사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작품이 갈 수 있었을까?

이 작품을 구매하는 데 성공한 순미 씨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마침 친구가 투석을 하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놀람과 낭패감에 휩싸여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투석만은 하고 싶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투석을 하는 시간도 즐겁고 에너지 넘치게 꾸려 낸 이의 작품이라 하니 꼭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올랐던 것이다.

맨 먼저 사겠다고 한 사람도, 돈을 좀 더 없어서 사겠다고 한 사람도 다 순미 씨에게 이 작품을 양보했다. 이 선물을 받은 순미 씨의 친구는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되었고, 투석을 하는 시간도 인생에서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도도하고 커다란 맥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거래와 이익의 배분은 매우 안전하고 믿을 만하고, 그럴 만하다는 신뢰가 생긴다. 이 신뢰는 물건이 조금 손상된 것, 가격이 시장논리로 맞지 않는 것, 배송이 늦어지는 것처럼, 기존 상거래에서는 용납되지 않고, 치명적인 손실로 남는 이런 실수들이 너그럽게 허용되는 힘으로 발휘된다.

따라서, 핑계부엌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은 이 아카이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창작자와 창작물, 창작물이 향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향유자, 그리고 이 전체 생태계에 대한 기록과 공유, 이해에 기반한 설명을 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크거나 전체적이지 않고, 긴밀하고 아주 작은 플랫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맥락을 읽어 줄 여유와 품과 짬을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듯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자립경제를 위한 주체와 그 주체를 돕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한사이클을 돌고 나면 이 사이클은 다음 경제활동으로 연계된다. 이렇게 연계되는 데에 가장 유효한 도구 역시 ‘대화’이다. 사람들은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근처를 지날 때 어김없이 ‘아, 이 동네 어디가 맛집인데’ 밥 먹을 때가 되면 ‘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하는 말을 저절로 하게 된다.

좋은 경험은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찬 상태로 여기에서 저기로 마구 번져 나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이 경제플랫폼 안에서의 경험이 아주 특별하고 기쁘고 다정하고 따뜻했다면 그것은 저절로 다음 주체들에게로 번져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사이클에서 축적된 공적기금들을 함께 운용하면 이 경제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한 시스템이 된다. 한 사이클은 아주 작고 긴밀하고 좁은 영향력을 가질지 모르나, 이렇게 깊숙한 경험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으로 이어지고 나면, 좋은 경험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핑계부엌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은 그렇게 시간을 두고, 두고두고 더 작고 더 긴밀해지도록 애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공동체로의 결속을 다지게 될 것이다.

핑계부역형 동네자립경제지원플랫폼으로 동네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

한 명이 백만 원 버는 거 말고

백 명이 일만 원 버는 방식의 경제활성화

핑계부역형 동네자립경제지원플랫폼이 동네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동네경제 활성화 규모를 미리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진다. 일정 기간 동네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를 GdP(Gross dongnea's Product)라고 할 때, 이 GdP는 먼저 예측되거나 선언되어서는 안된다. 목표로 하는 GdP 규모를 설정하는 순간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은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무리하는 일'이 발생한다. 동네자립경제는 경제활동의 부가가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그 자체, 그러니까 빚고 짓고 만들고 공공이하는 과정 자체의 질적 측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과정의 질적 효용감은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연구진 사이에서는 GdP에 완전히 반비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그런 까닭에 동네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핑계부역형 자립경제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목표 경제활동규모를 산정할 때 경제주체들의 수요 규모로부터 도출되도

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코바늘 뜨개질을 하는 창작자 한 사람이 무리가 되지 않게 완성할 수 있는 물건이 하루에 수세미 2개라고 한다면, 수세미 2개를 팔아서 생길 수 있는 매출규모를 이 동네에서 측정가능한 경제활동 규모로 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2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다. 다른 창작자는 좀 품이나 재료비가 많이 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10만 원 발생한다. 다른 창작자는 그저 텃밭 농사를 짓고 남는 채소를 한번 팔아 보는 거라 한 봉지에 3,000원 이면 된다고 한다. 이 창작자가 10봉지를 판다고 하면 매출 규모는 3만 원이 된다. 이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의 규모를 목표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귀납적 정책 설정 모델 '한 명이 백만 원 버는 거 말고 백 명이 일 만원 버는 방식'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있다. 참여 주체들의 매출목표의 총량으로 경제활성화목표액을 설정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무리하지 않고 현실화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핑계부역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을 통해 동네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때, 그 규모는 참여자가 무리하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순수한 바람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그 규모가 정해졌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해 저마다 작은 목표액이라도 '달성해 내는 경험을 하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핑계부역은 주거의 불안정성과 의식주에 관련한 기반을 모조로 외곽으로 내동댕이쳐 버린 서울과 경기 같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 위에서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정착할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는 무엇일까 고민해 왔다.

여러 전략 가운데서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먹고사는 게 가능해지면 그 동네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생계활동의 터전으로서 동네라는 공간과 사람들을 잘 가꾸려는 의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작은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손수 짓고 빚고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

을 설명하고 판매하고, 역시 이웃인 고객을 만나고, 돈을 벌어 보는 경험을 해 보는 실험이었다.

그 실험의 결과로 동네 자립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도구는 '대화'라는 사실과, 동네자립경제지원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를 발굴하고 특정하기-경제활동 내용 분석-경제활동 방식 기획-경제활동 수행 지원-모두가 이로운 이익의 배분-주체, 내용, 과정의 아카이빙-다음 경제활동으로의 연계'라는 7단계의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작은연구지원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 종료하지만,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끝을 모른다. 이제야 동네에서 '먹고사는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옆에서 삼삼오오 모여 읊

직이는 매대를 이합집산시켜 여는 게릴라 판매전을 기획하느라 핑계부엌 마당집이 시끌시끌하다. 날이 차고 역병이 돌고 있는 외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모이고 나누고 장을 벌이는 데 걱정이 되지 않게 된 것은, '즐거운 경험'을 해 본, '그 맛을 알아버린' 힘이다.

자기 상품을 만들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꾸미고, 설명하고 하는 대부분의 과정이 핑계부엌의 허름한 작업실 한켠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든 만만하게 드나들고, 재료를 잔뜩 들고와 말도 안 되는 음식부터 근사한 장식품까지 손수 만들어 보고, 필요한 물건이나 집기를 널브러뜨릴 수 있는 곳. 별다른 약속을 하지 않아도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되었다.

이렇게 문턱이 반질반질한 공간과, 핑계부엌형 자립경제지원플랫폼 구축의 7단계 전략을 결합한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동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플랫폼을 구축할 때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작은연구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는 보물창고이다. 두고두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으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 작은연구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01

디자인 플랜포히어

홈페이지 ggmaeul.or.kr

페이스북 @ggmaeulcenter

유튜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문의 031.852.2299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